2013.05.23 외부초청 간담회

<토론>

이재준: 강의 잘 들음. 교토학파가 현실을 긍정한다고 하는데, 당대 일본을 보면 그 당시 현실이 아니라 절대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 천황, 민족의 실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떼어놓기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과 구별짓기가 만들어짐 그것도 현실긍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왜 교토학파의 철학이 실천의 언어가 되지 못했는가? 정치언어로 만들려고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니체의 경우는 정치언어로 받아들여졌고, 야스퍼스 이후의 아렌트 등. 제가 이 글에서 읽은 니시다의 경우에는 분명 정치사상적 함의가 존재하고 나아가 윤리, 도덕. 칸트식의 윤리적 절대주의가 아니라 윤리적 상대주의를 넘어선 절대주의로 갔어야 하는데 니시다에서는 그렇게 안 감. 윤리적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거기서 나타나는 절대무, 도덕적 진실이 있어야 하는데 니시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지?

이찬수: 이는 니시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2050년 불교철학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함. 불교철학이 철저하게 일원론적 사유체계를 견지하는 순간 옳고 그름의 경험판단이 불가. 논리적으로는 다 옳다 그러나 범부의 경험은 그러하지 않음. 일상생활에서 판단, 비판을 요구하는 것이 저마다의 눈에서 그러해야 함.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 선불교에서는 불교의 윤리언어가 없음. 서양의 윤리학적 도덕에 대한 대응으로 불교도 하려고 하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함. 그런 점에서 도덕적 진실이랄 까, 그런 명제가 두루뭉실함. 현장 속으로 들어와야 하고, 중생의 삶에 들어와야 하고, 산으로 들어와서 저작거리로 와야 하고. 개인적 노력으로 들어와서 고통을 함께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정책적, 제도적으로 모든 이에게 생명적, 도덕적 가치가 수혜되도록 하는 가치가 불교 안에서 시도된 적이 없음. 개인자의 수행에 나옴. 니시다의 이야기에도 정치, 도덕 이야기하지만 다 빠져짐. 도식은 그 도식 안에 잇음. 타나베 하지메라는 사람은. 자신의 자신의 부인됨은 자신이다라고 실존적 경험을 함. 실제 그러한 순간 니시다는 나의 나됨은 철저히 자신 안에서 찾고자 함. 타나베는 현실존재에서 부인을 빼고 나를 설명하지 못함. 따라서 타력적 구원론을 펼침. 이는 정토불교와 맞물림. 귀에 존재한다. 고백 자체가 아미타불에 은총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토불교가 기독교랑 같다. 결국 희생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 부인이 희생한 것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도덕정신에 따른 이타적 실천을 함으로써 하고, 그 하게한 도덕적 실천을 하게 해야지 관념적으로 아미타불이 절대무에 존재한다고 끝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함. 어떤 도덕적 실천인가는 일본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철학적 함축성도 크다.

신이 악마로까지 자기를 비워낼 수 없다. 신과 악마 속에서 악마를 신화하려는 것, 현실의 악마성을 타개하려는 논리를 불교에서는 찾기 어려웠음

송지예: 니시다가 신의 존재를 인정함. 선악의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는 이분법

이찬수: 머릿 속에서는 연역적으로 공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갔겠지만 논리 자체는 귀납적이다. 현대 사상가들이 접근했던 것을 끊임없이 나열, 종합해가면서 시도함. A is B이다. B가 A로 한정해서 나타나야 한다. B는 무엇이길래? 끝없이 술어에 관심을 기울임. 술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또 다른 술어들, 다른 술어가 된다. 신을 전제하고 공을 풀어가는 것은 니시다의 머리에서는 연역적이지만

전제를 하는 것은 형이상학임. 형이상학을 타파하려는 노력.

송지예: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언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색즉시공을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인식이 먼저 들어와있다. 기존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말 넘어설 수 있는가의 이해. 더 강조하게 되는 식으로 가진 않을지?

이찬수: 논리적으로 이분법을 넘어서면 이분법이 ‘아니게’ 되는 것임. 내가 보는 것이 너가 되고, 내 안에 너가 있으면 내가 부정되어야 함. 내가 원래 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부정되어 있으므로 색이다라는 논리로 됨. 논리는 훌륭하다. 그러나 실존적인 것에서 자기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를 부정하지 않고 충분히 살려놓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부정해야 가능한 것이며, 나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무화임. 나의 부정을 하는 것이 사랑의 논리임. 현실에서 구체화하려는 것. 수행자들이기 이전에 학자들임. 교토학파들도 좌선도 많이 하면서 정말 자기부정이랄까, 내눈의 사물을 고스란히 살리려는 주체적 시도를 하기도 했음. 정보차원에서 학문한 사람들을 아닌 듯.

이재준: 일본이라는 국가가 없었던 시대, 혹은 국가의 탄생시기에 나온 사람. 진짜 공으로서가 아니라 0도로서의 색이 쏟아지던 시대에 살았음. 그런 현상에 대한 국제정치적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보는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보는 나를 보는 0도의 세계임. 아까 질문에서 보자면 어떻게 제국주의 시대를 긍정할 수 있었을까? 니시다의 시점에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일본 철학, 정치사상의 입장에서 교토학파가 어떤 위치에서? 서양학문을 하면서 자기규정, 교수의 직함에서 자기 규정. 서양식 철학의 시대가 요구하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기규정을 하고, 공동체끼리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았을까?

이찬수: 어떻게 보면 유식불교와 연관.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세상을 판단, 긍정하려는데 함몰되어 있었던 같긴 함. 메이지 시대 이래로 다양한 봉건 영주들이 통합되어가는 것. 니시다의 글에서는 천황 찬양의 글이 많음. 그것이 현실로서의 천황이 훌륭하다는 개인 찬양이 아니라 천황제의 논리도 신화성에 입각에서 국민이데올로기로 주입시킨 것인데, 니시다 기타로가 천황 개인의 인격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신존재, 건국신화가 있고, 건국신이 있음. 그 후손이 천황이라고 생각하고, 천황이 끝없이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니시다의 눈에서 볼 때는 끝없이 일본이 이어져 온 것을 보면 무형의 시원의 세계가 끝없이 현재세계로 구체화되는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자긍심도 있었을 것이고. 타협도 있었을 것이다. 천황제라던지. 자신만의 관념론에 사로잡혀서 시원의 세계가 구체화되가는 것이 현실긍정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보고, 천황제도라는 것, 천황제도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생동감을 많이 느꼈지 않았을까. 맥락을 추축해보기는.

이재준: 정치사상가의 기타이키가 있음. 니시다적인 이해를 천황제로 보여주는 사람임. 천황제를 부정하면서 일본을 군국주의로 일어감. 천황제의 역사성을 비판하고 모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의 절대성을 부정하고자 함. 마치 기타이키의 천황제의 긍정, 부정논리와 유사. 일본 정신의 근원에서 천황제가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면 긍정의 대상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정이다. 사실 아베의 수사도 보면 천황제, 일본 절대성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함. 마치 교토학파가 어떤 입지조건에 있는지.

이찬수: 천황제를 동전의 앞뒤처럼. 일본적인 것을 긍정하려고 한 것은 공통적이다. 일본 안에서도 천황제에 대한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고, 일본 신토를 통해서. 신토를 통해 확보. 제도적으로 재산을 강탈당하고, 신토와 불교가 같이 있다가 신토의 국가화를 위해 불교를 퇴화시킴. 불교가 상처를 많이 입었었음. 천황제의 저항의 흐름은 많은데, 니시다류의 교토학파들은 그런 의미의 현실참여형 인간이었기 보다는 책상 안에 안주. 천황제를 통해서 비가시적 세계를 가시화하고 절대무가 현상세계로 들러난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현실을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하나로 자부심을 가졌을 것도 같다. 교토학파도 철학자들이고, 철학이전에는 국체 이전의 유학적 사유라던지, 전통 불교적 사유를 하였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지만 본격 학파로까지 서양언어로 만든 것은 최초임. 자신들의 관념 속에서 서양의 근대가 도달하지 못한, 존재의 이원론을 넘어섰다. 자신들의 철학이 근대를 초극했다고 함. 근대 앞서서 이원론의 흔적의 일소시키는 것을 자신있게 공표함. 1940년대 근대 추국논쟁이 벌어짐. 니시다 기타로가 이념적 기초를 제시했다면 이후에는 학문적으로. 근대를 너히가 넘어섰다는 일본의 자화자찬은 사실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천황제에 눌리고 뒤틀린 순응이다. 서양의 주체는 인원론, 초월의 흔적이 깨지고 개인의 내면이 솟알오른 것이 근대다. 일본의 근대는 천황제에 눌린 근대므로 개인이 눌린 근대다. 너의가 이야기하는 근대의 초극은 불충분하다. 교토학파로 인해서 일본의 철학적 흐름들이 제국주의, 민족주의 철학들이 근원적으로 반성되는 계기가 됨.

용채영: 하이데거는 무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였고, 상대적으로 서양의 주체중심, 존재자중심의 철학 벗어나고자 노력함. 교토학파는 하이데거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이찬수: 하이데거 비판은 상대적으로 덜함. 교토학파에게 있어서는 서양철학을 수용하며넛 자기 정신적 스승임. 당시 독일, 일본 관계를 생각해도 그러함. 일본은 독일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동지의식을 강함. 하이데거가 스승이었음. 하이데거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 적다. 하이데거가 존재의 빛 이랄까. 실존이나 존재나 존재자의 관계의 접근방식은 그 구도가 교토학파를 많이 빌려와서 씀. 내용보다는 하이데거 철학의 구조를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니시다니 케이지에게 그런 영향이 강함. 현재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두리뭉실하다.

도종윤: 헤겔, 니체의 변증법적 실천과 유사. 단어들을 보다 보면 의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었음. 규범적인 것과도 연관됨. 서양철학은 의지의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장소에 대한 논리가 잘 이해 안됨. 구체적 장소가 아니라 ~에서라고 설명해주심.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이재준: 장이다. 다양한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편적 근원이다. 자연법칙과 유사한 것. 자연법칙의 원리 안에서 등장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인가를 세공해내는 것 같아도 조작자체가 자연법칙 안에서 이뤄짐. 건물을 세우게 하는 장임. 비유하자면 다양한 인식이라고 그렇고 어떤 사물을 판단 되어 진 내용이 판단 되게 한 근원이 별개가 아니라 판단 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것. 능동성을 핵심으로 한 것.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이라고 함. 그 장소가 다름 아니라 공이야. 의지의 문제는 타나베 하지메가 이를 많이 설명하고자 했었음. 의지 자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의지임. 의지를 하고자 하는 것, 한 것이 아님. 하고자 한 것은 한 것이 아니라서 도달하지 못한 것이 의지이다. 교토학파의 눈으로 볼 때, 의지는 현실론-초월론의 이원적 상태에 머무른 것이다. 의지라는 말을 서양철학의 언어에서 많이 쓰지만 도달하지 못한 자기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력에의 의지, ~힘에의 의지라고 씀. 하고자 하는 것의 긍정이 아니다. 서양철학의 언어에 비판적일 때만 쓴다. 그럼에도 인간이 하고자 해서 실제로 하고, 절대 무를 설명. 하고자 하는 것을 긍정하지 않고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제도를 만들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빼고 얼마나 설명이 됬는가. 다케우치도 절대의지라고 용어를 씀. 주객분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으로 절대의지이다. 하고자 함이라는 매개를 넣고자 함. 하지만 교토학파의 대체는 의지가 이원론의 흔적이고, 도달하지 못한 과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판한다.

권민주: 감정이입, 경험에 비추어 대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서구적인 감정이입도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다른 것과 같음. 연민과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찬수: 불교적 언어로 하면 ‘보살도’라는 것이 자비임. ‘자’는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것, ‘비’는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다. 불교적 수행자들이 걸어야 할 자세임. 기본적으로 나와 너의 분리가 아니라 합일임. 일상언어로 설명하면 그런 것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한다고 할 때, 내가 너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갈 내가 별도로 있다는 것은 들어갈 내가 없다는 것과 같다. 들어갈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의 아픔만 남음. 그냥 그대. 기쁨도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내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empathy라고 하면 sympathy도 마찬가지. 감정을 이입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내가 별도로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나? 내가 아픈 것이 들어간 것과 같음. 동시적이다. 단계적, 논리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아픈 것이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의 어딘 가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따라서 병이 든 것임. 대승불교의 압권임. 그것은 나와 중생의 따로가 아니라 중생의 아픔이 나다. 내가 들어가는 차원이 아닌 것임. 그러면 실천이라고 할 것도 없음. 번뇌-열반이 따로있지 않고 번뇌=열반이 되듯이. 너의 아픔=나의 아픔이 되면 너의 아픔도 사라지게 되는 것임.

질문: 교토학파의 문제인지, 불교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장소의 정체성이 뭐냐? 장소가 무엇인지 확보가 안 되어있으면 저 사람도 나를 탈피해서 나라는 그 사람 속에 그 안에 들어와도 나인 것이고 동일시 되는 구조라면 집단, 민중, 천황, 민중으로 함몰될 가능성이 큰 것.

이찬수: 실제 그렇게 나타난 것이 맞다. 일본적 논리 안에서 다 긍정 된 것장소, 하얀 화이트 보드가 장소다. 화이트 보드 안에서 빨간 글씨가 나온 것. 화이트 보드 안에서 객체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객체들이 고스란히 살아나려면 하얀 보드가 아무 것도 아니어야 함. 자연법칙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에 가까운 것이다. 눈, 귀, 자연법칙에 직접적이다. 만지고, 느끼고 이다. 장소는 그대로와 같음. 자연법칙의 감각기관에서 그러한 것처럼 세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신기하지만 다 자연법칙적인 원리와 같음. 그 원리일 수도 있고. 다 원리 안에 있는 것. 그 원리를 장소로 표현했는데 그 원리가 따로 있지 않다. 존재의 차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으로 있는 것이다.

김지영: 노자가 인식세계 밖의 무에 집중하라고 했음. 유를 포괄하는 무라고 생감. 유는 무이고 무는 유이고. 인식세계의 안과 밖에 절대 존재하는 것이 무이다. 인식을 빼고 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이찬수: 유를 포괄하는 무라고 할 때, 무는 없는 것이다. 유뿐인 것이다. 이만큼만 감싸는 무는 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만 있는 것. 무는 상대성을 변치 못하는 무라서 절대무라고 해야 한다. 상대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다양한 유들만 남는 것.

권민주: 일원론의 윤리적 기준의 부재가 교토학파만이 아니라 불교철학의 문제라면 어떤 일원론에 기반해서 윤리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포함하여 공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윤리적 기초에 생긴 것 같은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지만 일원론으로 갔을 때 상대주의가 두렵냐면 우리가 가진 가치는 비불교적 가치임. 신체의 자유, 경제의 자유 등. 불교가 가진 가치기준과 다른 것이 아닌가?

이찬수: 불교윤리가 어려운 것은 하늘나라의 윤리와 같음. 하늘나라의 윤리처럼 이상적임. 누군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고 왜 하냐? 극복, 보완, 완성하기 위한 행동이 윤리적 행동의 원천인 것이 아닌가? 절대 무, 현실을 고스란히 긍정한 논리로 보면 다 있는 그대로 긍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무엇을 하는 것도 없음. 하늘나라, 이상적 세계와도 비슷함. 불교윤리는 이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음. 현실언어로 내려와야 하는데, 불교는 현실언어가 있음. ‘자비’. 이원론의 연속이고, 그 아픔 속에서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므로 일반 언어는 자기부정에 연관됨. 현실의 윤리적 지침들은 널려있지만 기준들을 이야기하기 어려움. 윤리라는 말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언어임. 대승불교는 이미 하늘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한 것과 비슷함. 불교윤리를 이야기하자면 그저 방편적 구분을 함. 강을 건너기 위한 배는 방편임. 언어는 실재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언어에 얽매여선 곤란하다.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과 같다. 방편적 윤리들만 나옴. 불교윤리는 아픔 치유하고 사회에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방편적 윤리일 뿐.

질문: 조선현실에 대한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맑스주의. 일본적인 무엇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공부시작한 것인지? 그것은 아님. 독특한 생각. 시대영향을 안 받고 독특한 생각. 이런 사람들을 서양철학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부족함이 있다는 발견을 하고 일본불교에서 찾은 것인지,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 그런 frame으로 서양철학을 독해하다보니까 서양철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인지?

이찬수: 양쪽 다임. 선이해 없이 한 것은 아님. 일본근대은 서양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것임. 선의 이해라는 책만 봐도 윌리암 제임스, 칸트 등 인용, 공부를 함.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함. 이미 불교철학이 이미 답을 해왔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함. 일본 불교철학을 모르면 서양철학의 비판이 불가능함. 서양철학의 한계가 보였고, 다시 불교철학적 사유를 갖고 극복하려고함. 이를 내가 정리했을 뿐임. 그냥 자신들의 언어가 자신들이 개발한 언어처럼 씀. 불교적 우월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 무 등의 언어로 각색하면서 서양철학이 도달하지 못한 세계를 간다고 함. 둘 다임.